

# 동국대 총장 후보자 추천위 구성될까?

동국대 이사회가 교수 뿐 아니라 외부 전문 인력도 총장이 될 수 있는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동국대 이사회는 1월 24일 제 215차 이사회에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복수의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 추천위는 총학생회, 학교 노조, 교수회, 총동창회, 조계종단 관계자 등 학교와 관련된 약 33명의 위원들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들의 추천을 받은 복수 또는 삼배수 교수나 외부 전문 인력은 이사회의 최종 결정으로 총장에 당선된다. 이전 총장 선출 방식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직접선거를 치른 뒤 복수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는 명문화된 규정 없이 진행돼 왔다.

총장 후보자 추천위와 관련해 23일 이사회, 교수회, 노조, 총학생회가 일제히 입장을 밝혔다. 이사장 겸 총장은 "금번 이사회를 통해 총장선출 방법을 새롭게 정비하고자하는 진정된 뜻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통해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진지한 성찰과 고뇌에서 출발되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수회(회장 염준근)는 "새해 벽두부터 그동안 품문으로 나뉘던 재단과 학교당국의 재집권 음모설이 재단·학교당국 일방 주도의 '총장후보자추대위 규정' 제정으로 현실화되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교수회는 또한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총장이 자신의 후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불명예를 넘어 민주사회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들과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려는 학교 당국의 행태는 온전히 동의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차기 이사회로 안건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위원장 최광제도)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규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

## 이사회, 학생·노조·교수로 33명 계획 교수회, "협의과정 없었다" 절차 문제 제기

이에 대해 현재 스님은 "집권 연장"이나 "총장의 무모한 욕심"이나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퍼는 것은 본인들의 기득권수호와 자기총장에 대한 가집 없는 욕망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총학생회(회장 정성진) 또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선부른 음모론을 제기하며 학교 당국과 사건건대립각을 세워가는 교수회의 태도는 변화에 둔감하고 개혁을 부정하는 또 다른 수구의 전형일 뿐"이라며 교수회를 공격했다. 다만 총학생회는 "학내 구성원

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변민우 노조 사무국장은 "규정 제정 내용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장선출제도에 대해 아무런 논의나 절차도 없이 학교와 노조가 협의하도록 합의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규정 제정을 하려고 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사회가 차기 이사회 이전 교수회, 학생회, 노조 등과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낼지가 총장 후보자 추천위 구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떡국 드시고 오래 사세요”

양정복지센터, 저소득 어르신에 떡국거리 전달



1월 25일 양정 청소년수련관 3층, 가족 없이 외롭게 일상을 이어가던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저소득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해홍)가 주최한 설날맞이 떡국거리 전달식에 참석한 지역 150세대 어르신들은 용호어린이집 원생들이 펼치는 재롱잔치에 절로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이날 행사는 설날을 맞이하여 지역 내 홀로 어르신과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떡국거리를 전달하기 위

해 마련됐지만 어르신들엔 아이들의 귀여운 울음도 그 어떤 선물보다 반가운 눈치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설날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직접 떡국거리를 마련하기 힘든 사정을 고려해, 떡가래와 떡국 고령으로 사용할 표고버섯, 김, 소고기 등을 정성껏 마련했다. 또한 간식인 사탕까지 준비해 함께 전달했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관장 해홍스님은 "큰 선물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떡국을 어르신들의 새해 아침으로 드시면서 건강하게 오래 오래 행복하시길 기원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5천원 이상의 후원금과 쌀, 가래떡, 과일, 김, 라면, 음료수 등의 후원물품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 (051)866-0454 천미희 기자

▲나눔성금 1월 입금자  
안현정 3,000 / 박상환 30,000 / 신금례 50,000 / 김애자 30,000 / 백석주공명  
최 44,680 / 박찬도 30,000 / 변용대(천일이앤씨) 100,000 / 김호란 50,000 / 조근영 1,000 / 한미음선원 안양본원 478,320  
▲나눔성금 지출내역  
사업진행비(저금통 및 스티커 발송, 택배비, 운송비 포함) 782,020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비 지원 100만원  
1차 장학금 25,946,990  
2차 장학금 14,274,250  
나눔성금 총잔액 11,188,380

# 진각복지재단 화두는 '네트워크'

지역 심인당-시설 연계 자원봉사 활성화 기대

'진각종의 새해 복지 화두는 네트워크 구성.' 진각복지재단은 1월 17일 총인원에서 열린 산하시설장들의 신년업무 보고회에서 이 같은 법인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법인사업계획에 따르면, 진각복지재단은 올해 '산하시설 지도소스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산하시설 지도소스제'는 각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역 심인당과 복지시설을 연계하는 제도다. 주요 산하복지시설에 지역의 심인당 지도소스를 위촉해, 기관 운영에 정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게 된다.

또 지도소스제가 도입되면 지역 심인당의 신도, 청년회 등과의 교류도 증대돼 자연스럽게 복지시설 자원봉사도 활발해질 것으로 재단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탁대 산하 진각사회복지연구소와의 협약체결을 완료해 복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99년 발족 이후 활동이 부진했던 봉사단도 서울산하복지시설을 거점으로 조직해 재출발한다. 진각복지재단은 이밖에도 올해 중랑노년전문요양원(6월 개원), 대구서구노년전문요양원(8월), 포항위덕노년요양원(10월), 미혼모시설 및 울릉군립 어린이집(5월) 등 5개 시설을 새로 개원할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 지울스님 광주 병원으로 이송

24일부터 치료받아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천성산 자입이' 지울 스님이 1월 27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방병원으로 이송됐다. 불교계 한 관계자는 "취재진 등의 방문이 잦아 극도로 민감해져 있는 지울 스님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있어 지인들과 동생 조경자씨의 권유로

광주에 있는 한방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갑자기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1월 5일 동국대 일산병원으로 후송된 지울 스님은 계속 치료를 거부해오다 입원 19일만인 1월 24일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해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함유된 수액공급 수준의 치료만 이뤄졌을 뿐 본격적인 치료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 박봉영 기자

# 묵삭소리

최근 '전국승복연합회(임시회장 임판수)'라는 생소한 이름의 단체가 생겼다. 40여 년 전부터 의제를 통일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조계종이 올해 종단차원의 직접 가사를 제작하겠다고 나서면서 300여 승복업체가 연합

하지만 스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처지에 종단의 신기를 건드릴 수 없어, 대놓고 반대를 못하고 속단 태우고 있는 형편이다. 연합회를 급조하는 등 부당한 일들에 동정적 여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승복업체들은 종단의 의제통일 노력에 뒷받침 되고 있었고, 스님들을 상대로 과도한(?) 이윤을 남긴다. 승복업체들은 종단의 의제통일 노력에 뒷받침 되고 있었고, 스님들을 상대로 과도한(?) 이윤을 남긴다.

# 승복연합회에 바란다

이들은 나름대로 불심으로 스님들의 법의를 만드는데 사명감으로 일해 왔는데, 종단이 직접 스님들의 옷을 만들 경우 대부분 영세 업체인 승복제작사들은 혹은 시나 생계에 위협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삼보론 가사천의 의장 등록과정에도 특정업체와 관련한 총무원의 특혜시비가 무성하다.

승복연합회는 종단의 의제통일 노력에 뒷받침 되고 있었고, 스님들을 상대로 과도한(?) 이윤을 남긴다. 승복업체들은 종단의 의제통일 노력에 뒷받침 되고 있었고, 스님들을 상대로 과도한(?) 이윤을 남긴다.

# 동국대 이사회 연기

제215차 동국대 이사회가 성원 미달로 연기됐다. 동국대 이사회는 1월 24일 동국대 본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총원 13명 중 6명이 참석, 과반수인 7명에 못 미쳐 연기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추가경정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교비집행관련 교육부 시정요구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이사회 의결부호소송 및 업무방해 고소자 처리에 관한 사항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한편 이사회가 열릴 본관 앞에서

'강경우 교수 사건해결을 위한 동국대 학생대책위' 관계자 20여명이 강 교수 직위해제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3000배 릴레이기도 정전에 들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 인드라마생명공동체 '농업 농촌 살리기' 좌담

무너져가는 농촌경제를 살리고, 우리 삶의 터전을 돌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1월 23일 인드라마생명공동체와 모심과살림연구소, 초목정치연대가 주최한 '2006 생명과 평화의 조건을 찾아서' 좌담회는 생명과 평화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농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리였다. 주제 강연을 발표한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공동체는 생명의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생명 평화적 가치최도로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초목정치연대 우석훈 박사는 "정부의 탈농정책이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농업경쟁력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농소정 형태의 합의를 통해 대안적 사회 프로그램 마련과 논의체계 정비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농촌을 살리는 대안은 유기농'이라고 입을 모으며 "활발한 도농교류를 통해 판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비 기자

# '동백림 간첩단 아니다' 과거사토 발표 환영

윤이상평화재단(이사장 박재규)이 국정원 과거사조사위원회의 '동백림 사건' 발표와 관련해 "동백림 사건이 40여년 만에 가해 당사자인 국가정보원에 의해 '간첩단 사건'으로 불 수 없다"는 조사 내용이 발표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월 26일 발표했다. 윤이상평화재단은 성명서에서 '발표 내용 모두에 대한 수용여부는 향후 관련 단체 및 유족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며 정확한 진상 규명작업이 참여정부의 다른 과거사 조사 기관에서도 계속되기를 기대

한다"며 "재심과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기자

# 연등축제 울동 자료집 나와

봉추위원회와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는 공동으로 1월 16일 연등축제에 사용했던 울동을 총정리한 <연등축제 울동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에는 그동안 연등축제를 위해 작곡한 찬불가와 대중가요 등 27곡이 각 노래마디의 울동 사진과 함께 들어 있다. 특히 울동 하나마다 동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달아 놓아 사찰이나 신령단체의 행사나 법회 때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 奉 道 性 道 大 宗 師 1 주 기 추 모 재 行



도암 성도 큰스님께서 열반하신지 1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명당수에 나투신 영롱한 사리가 큰스님을 더욱더 크게 생각하게 합니다. 1주기를 맞이하여 전 문도스님들은 물론 전 종도스님들과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큰스님의 위덕을 다시한번 새겨주시기를 앙망 하나이다.

도암 문도회 명단(무순)

법호 법정 법청 법전 법상 법호 법서 법진 법운 법음 법현 법오 법인 법전 법장 법두 법우 법관 법연 법화 법신 법광 법선 법성 법관 법명 법공 법춘 법운 법중 법산 법도 법타 법경 법흥 법화 법해 법계 법등 법열 법덕 법륜 법수 법창 법찰 법철 법암 법향 법일 법법 법해 법천 일봉 모심 성명 복속 벽암

[재가불자]  
황흥기 대광명 고윤동 죽 산 박영숙 관음행 김명옥 자비행 엄경숙 환희심 배상수 김순덕 신선자 우순복 정영순 진민복 김선에 송석희 김선희 박상옥 서길순 박신자 이래춘 이경순 신통력

흥도사신도회 회장 서문자 총무 이지희

일 시 : 불기 2550년 2월 13일(음력 1월 16일) 오전 11시  
장 소 : 서울 흥도사 대웅전  
문의처 : 02)2234-2198 / 문도회 총무 011-507-2837

대한불교 대승종 종찰 흥도사 주지 법운 성원 합장  
도암 성도 대종사 문도회 회장 법호 서호

# 대한불교 대승종 임원공고

- |                 |               |
|-----------------|---------------|
| 부 종 정           | 법 청 천 광       |
| 총 무 원 장         | 법 청 천 화       |
| 중 앙 종 의 회 의 장   | 법 호 서 호       |
| 중 앙 종 의 회 부 의 장 | 법 호 서 청 원     |
| 감 찰 원 장         | 법 호 서 심 곡     |
| 고 시 원 장         | 법 호 서 상 정 산   |
| 교 육 원 장         | 법 호 서 성 정 일   |
| 기 획 실 장         | 법 호 서 지 응 정 관 |
| 총 무 부 장         | 법 호 서 인 지     |
- 재무부장 법음 정관 교육부장 법창 덕문  
복지부장 법연 덕문 의정국장 원도
- 서울교구 총무원장 법암 혜심 경기교구 총무원장 법신  
강원교구 총무원장 탄오 충청교구 총무원장 혜능  
전북교구 총무원장 법전 법현 군산교구 총무원장 덕일  
경남교구 총무원장 법인 운남 경북교구 총무원장 혜암  
부산교구 총무원장 법수 청운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부산 남구 우암1동 174-32 진원암 TEL 051)638-4088